

◆ ECGD, 태국 공군 앞 항공기 점검 서비스 수출거래에 보험 제공

영국 수출신용보증국(ECGD)은 자국의 항공기 제작사인 마샬 국제우주항공서비스(MAIS)의 태국 공군 앞 항공기 점검 서비스 제공거래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기로 하였다.

영국 유수의 민간 항공기 제작사인 마샬 항공사의 자회사인 MAIS는 세계적인 항공 엔지니어링 및 정비 서비스 업체로, 220만 파운드 상당의 이번 서비스 수출을 통해 태국 공군 항공기의 유지 및 정밀검사를 담당하게 된다.

현재 세계 항공기 운행규정상 모든 항공기들은 일정시간의 비행 이후에는 주기적인 기체 정밀검사 및 시험비행, 분해 및 재조립, 부품 및 장비 교환 등의 유지보수가 의무화되어 있다.

태국 공군은 군용 헬리콥터 및 수송기, 전투기 등의 수명 연장 및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이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ECGD는 동 거래에 수출보험(Export Insurance Policy: EXIP) 및 보증보험(Bond Insurance Policy : BIP)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성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.

한편, 최근의 OECD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항공기 및 엔진 제작업체들도 상업참고금리(CIRR)로 항공기 수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난 5월 ECGD를 비롯한 Coface, Hermes 등 수출신용기관들이 유럽내 항공기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.

【金基相】